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10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7. 23(금) 14:00~17:06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 원 보 고

박중관 위원장 : 제31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오늘 전체회의는 나주 본관에서 저와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하고 위원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어 영상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성원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고필 위원님께서서는 아직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중관 위원장 : 전고필 위원은 사정상 접속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보고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중관 위원장 : 오늘 제31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극장운영부의 김상희 차장을 포함해서 총 12인의 사무처 직원이 회의에 참관을 요청하여 회의참관을 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고자와 실무자입니다.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07차 전체회의에서 4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3건이 원안의결, 1건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08차, 제309차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중관 위원장 :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회의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제310차 회의에는 총 4개의 의결사항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21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후 이종국 부장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의 답변을 연이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의결안건 제897호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님과 정정숙 위원님께서 사전의견을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의견서에 핵심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회의자료의 내용과 별도로 지원총괄부의 입장에서 2022년도 공모를 앞두고, 특히 다원예술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실험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심사평도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별도의 파일로 보내드렸던 40페이지짜리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종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원예술 정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2006년에 나왔을 때도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각 기존 장르에 포함되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을 발굴해 내고 가치들을 이쪽에서 포용해서 지원영역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심의제도 개선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사평으로 되어 있는 파일의 6페이지와 7페이지에 크게 4가지의 새로운 시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2021년 현재 시점에서 현장이 말하는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까지도 지원신청서에 총 294명이 신청하신 내용을 전체 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거쳐서 정리를 했고요. 이것은 정리보다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06년과 기존 10년 전 대비해서 다원예술의 경향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인 내용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의결안건 본문에도 있지만 특히 위원회의 다원예술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들을 진행해 오면서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을 위원회 사업을 보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사업부에서 추진하는 Art&Tech 사업이라든지 온라인미디어 활동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등 별도의 지금 다원예술보다 더 큰 사업들로 개별적으로 싹을 키우는데 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Art&Tech, 온라인미디어 등을 가리지 않고 신청기회가 있을 경우 중복해서 동일한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계획 시 사업 간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심 대상으로 선정된 50건 중에 40%가 넘게 기술과 관련된 융합 쪽의 사업들이 많았고 이것들이 동료평가를 거쳤을

때 현재 우리가 정책 영역으로 삼고 있는 다원예술에서 지원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말씀 주셨던 지역최소보장제 적용의 경우 본 사업은 블라인드 심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권역별로 앵커조직을 별도로 선정해서 Reboot 진행 시 같이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논의과정에서 그것은 차년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별도 권역별로는 올해 이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다원예술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실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예정이며, 민간 주체와 파트너를 키워야 되겠다는 것 또한 심사평에 적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정비율을 보시면 7.8%정도에 그칩니다. 통상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평균 선정률이 20%인 반면 뒤에 설명드릴 아동·청소년은 70%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이 각각 4억 8,000만 원의 지원공모예산 대비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로 통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정률로 인해 많은 불만과 아쉬움이 있음을 피드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원예술로 선정된 23개 사업의 면면과 탈락된 면면을 보면, 제가 담당자였던 10여 년 전의 다원예술분야 정통의 강자라고 했던 곳이 거의 중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이쪽 분야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않았던 형태의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트렌드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는 저희도 시각다원 팀으로 해서 조직에서 시각예술로부터의 다원예술 활동기반이 있다는 경향들을 확인했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공연예술 중심으로 다원예술분야에서 융복합이나 여러 장르 간 결합의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동료평가 예심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15페이지부터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했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정을 했는지를 저희가 최대한 시각화를 시켜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숙 위원님께서 의견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인당 42개 그룹별 심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있었던 점이 5일이 심의기간이었고 전문가들은 49건을 12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물리적으로 10일 이상 보장을 하면 이번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일밖에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 2명이 2개 사업을 동시에 심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5일 동안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비가 지급되는 점은 사실 위원님들 간에도 내용들이 갈리는데요. 저 또한 참여예산제도라든지, 애초에 참여형 형태로 했던 것들을 여기에 노동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왜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심사비를 주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요.”라는 문제보다 좀 다른 측면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비 자체는 애초 공지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가 되어 있었고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42건을 5일간에 보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당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충분량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42개가 적당했느냐? 아니면 제안해 주신 대로 20개 밑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료집단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불만과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이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판단의 전문성도 없는 것 같은데 심사에 참여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부실한 심사 피드백 등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려면 저희 측에서는 40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제 심사평에도 나와 있지만 그 40개 그룹과 전문가 심사의 차이에 대해서 같은 점과 유사한 점, 차이점 등을 상세하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심사결과와 같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료 평가와 전문가 평가에서 1위는 동일한 사업이었고 실제 선정권에 있는 상위 20건은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심의를 했거나 동료 심의를 했거나 결국 뽑힐 사람에 대한 후보군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밑의 관점이 좀 달라졌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음 안건인 아동·청소년 대상 활성화 사업에도 심의건수 총량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도 400건이 접수되었는데 실제로 한 달 이상을 드려도 전문가 심사위원이 400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모두 리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건이 넘게 들어오는데 아무리 기간을 오래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검토를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심사평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개의 안건을 같이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연결된 사안인데 다원예술 관련해서는 사전의견을 주신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결안건을 동시에 2개 상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 부서가 분석 작업과 그래픽 작업을 하고 19일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검토를 하시고 위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꽤 애를 써서 41쪽짜리 긴 분량으로 그래픽이 동반된 심의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도 시사점이 많습니니다만, 과정도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거나 말씀을 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말씀을 시작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종열 위원님께서서는 이종국 부장이 요약을 했습니다만, 핵심 시사점이 조금 부족하면 말씀을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저는 요약본 위주로 봤고 상세본도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동료 평가를 바라보는 입장이 지원자들한테도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7.8%밖에 되지 않았고요. 인식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가 3대 7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작 자신한테 도움이 되었다. 아니면 심의방식에서 어떤 블라인드 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것을 준다면, 그리고 심의기간이 사실상 굉장히 짧았던 것을 여유 있게 준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료 평가제도가 생각보다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인식에 대한 것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표를 보면 확대 평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것이 30%고 긍정적인 것이 48%이기는 하지만 유보적인 입장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유보라는 것들이 동료 평가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과정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우선은 지원총괄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두 분이 진행을 하셔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았고 보고서 작성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노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지에 보면 동료집단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8번에서 “2021년 Reboot 사업에서 동료집단 심의가 지원대상 선정을 하는데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느냐?”에서 ‘적절하다.’와 ‘비적절하다.’라는 2가지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의방식에 대한 적절함은 질문 8번에서 적절함을 택한 사람이 9번을 보는 것이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답변이 없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정종열 위원 :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저는 자세하게 나온 보고서의 맨 뒤편의 질문만 나온 것을 봤거든요. 이종국 부장님, 이게 실제로 나간 질문지가 맞죠?

박종관 위원장 : 찾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경주 위원 : 자세한 보고서 125페이지요.

정정숙 위원 : 박경주 위원님, 그래픽의 24번 슬라이드에 내용이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여쭙보는 것은 실제로 나간 설문지 양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나간 설문조사지가 맞죠?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맞습니다.

박경주 위원 : 질문지 8번과 9번이 연결은 되는데요. 8번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질문이 없어서 혹시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인지를 여쭙보는 것입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저희가 수요일에 별도로 보내드린 원문 55페이지에 적절하지 않은 1순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부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평으로 별도로 보내드린 별첨과일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방식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동료심사 자격에 대한 의문이 31%로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대로 그냥 가자는 의견들을 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별도로 보내드렸던 설문조사 분석 결과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 빨리 결과발표가 나와야 현장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결과는 의결을 해서 빨리 발표하고 입장문이 동시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주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서 의미 있는 토론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8월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계획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어떻까 하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아주 바람직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선정률 7.8%로 선정률 10% 미만으로 신청자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의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함을 극복해야 다원 사업에 신청하는 예술인들의 근본적인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간절했고요. 좀 영세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30% 정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함에서 오는 불만도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블라인드 심의 이후로 심각한 지역비, 지역비가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로 된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으로 현장에 지원사업의 결과를 의결하여 결정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지원사업을 위한 개선 작업들을 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저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먼저 제의하신 대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동료심의 제도 시범도입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과 관련해서도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논의가 많이 되었고 검토가 된 것이죠?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검토한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지난번에 위임해 주신 모임에서 논의를 준비해서 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입장문을 처음 보는 위원님들도 계시겠네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지난 수요일에 별도로 보내드렸고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처음 본다고 볼 수는 없네요? 적어도 수요일에 받으셨으니까 아마 회의자료를 검토하실 때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셨다고 이

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 예, 저는 사실 문서로 의견을 다 드렸고요. 저는 기관의 문제의식에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초로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원문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원재 위원 : 예,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협의니까 발표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정숙 위원 : 예, 재청합니다.

이시백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입장문은 검토를 하신 안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진희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입장문 1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예술위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단순히 신청자의 선의를” 이 단락에서 “의식적, 무의적 혐오차별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의 ‘의식적’, ‘무의식적’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굳이 구분해서 혐오차별 행위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의식적’, ‘무의식적’ 이라는 말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예, 이진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원재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 부분은 빼더라도 문맥상 차이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요.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중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릴 텐데요. 역시 앞선 다원예술활동 Reboot 지원심의 결정의 건 때 이미 두 번째 의결안건과 관련된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된 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중복은 피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 의견을 함께 보고하고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짧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898호입니다. 별첨의 심사평 슬라이드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2022년을 앞두고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든지 여러 문학 사업처럼 1,000건이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사의 질을 담보할 수가 있느냐? 이런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장에도 내용을 전달했고요. 이 과정에서 정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악분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건 중에 10%인 41건이 신청되었지만 단 1건도 선정이 안 되었다. 이것은 음악분야를 전공하신 심사위원도 계셨지만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통합심의인 만큼 문학, 무용, 뮤지컬까지 모두 검토를 하신 결과 기준에 있는, 특히 신나는 예술여행의 심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이게 뭐가 다르냐?” 애초에 저희가 창작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정말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 향유사업, 참여형 사업들이 아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조를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존에 본인들 레퍼토리로 지원을 했던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차라리 주는 것이, 1건을 상징적으로 선정하는 게 낫겠다는 최종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심사평에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전차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 주는 가이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퍼실리테이터 관련해서는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에 지원총괄부가 담당부서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기관으로 처음일 텐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나갈 것입니다.”라고 예고를 먼저 하고 수요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800건 넘게 신청을 했고 실제 퍼실리테이터 그룹 관련해서도 사무처가 전화를 받은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종 1건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반년의 기간 동안 전 장르를 다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에 대해서 많은 기획사, 특정 단체들이 큰 부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는 많았지만 최종 1건만 신청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예술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일이 많아서 대행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민간 합동으로 해서 새로운 지원방식의 모델, 특히 선정을 하고 나서 대부분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가가 참여해서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당부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도 내년 공모를 할 때 꼭 이 방식대로 간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결과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란 위원 :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아동·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심의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합심의에 대해서 혹시 뭔가 다른 의견이 없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사전에 많은 문의를 주셨고요. “내가 사진작가인데 문학 쪽을 볼 수 있겠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된다.”와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 여기는 아동·청소년 대상에 대한 각 장르별로 새로운 창작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셨을 때 그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과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타 장르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드렸고요. 그 취지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회의록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통합심의 방식은 단순하게 본인의 전문 장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120개를 3개 그룹씩 랜덤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신 모두가 “오히려 이 방식이 도움이 되었다.” 그다음에 본인이 전문인 장르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때 타 장르와 비교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충실한 논의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채점을 사전에 요청했습니다. 그 경향까지 분석해서 안내를 드리고 장시간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확정된 후 채점을 마무리 했습니다. 실제 그것에 대한 부담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유란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유란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비중 문제 등의 안배가 있었던 것은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한 결과죠?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7대 3정도로 아동·청소년 사업이 신청되었는데요. 결국 2대 8정도로 비율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최종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10인이 전원 합의를 해서 커트라인의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했고 비수도권에 있던 것 3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 신규 사업의 창작모델이 단순히 지역의 비중을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 첫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정확한 시그널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데 지역이라고 무조건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셔서 최종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문가 심사위원이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는 퍼실리테이터 관련해서 1개 팀만 지원한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팀을 뽑을 때 몇 배수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공모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의전화는 꽤 많이 받은 반면에 정작 신청은 1건밖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어떻게 반년 동안 40개 단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나?” 사실상 메리트 못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담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의 한계 상 4억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면 가장 큰 비중인데 그것을 더 늘릴 수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 좀 고려가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용역 입찰 때는 당연히 1개만 있으면 유찰이 돼서 다시 할 텐데요. 이것은 지원사업이었고 1건이지만 당연하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40분 넘게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 끝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거의 조건부 선정에 가까운 형태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원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제공모가 아니고 ‘적격’, ‘부적격’을 심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격이 된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격이 안 되면 1팀이라도 ‘부적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의견 드리고 싶은 점이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술위도 그렇고 예술기관들이 공모사업 안에 아웃소싱과 같이 운영팀을 넣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그게 기관의 노동 강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퍼실리테이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디렉팅의 개념으로 한다면 위원회가 선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웃소싱으로 관리할 경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사업들이, 특히 다른 곳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술위원회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같이 연결되는 게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공모방식의 문제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면서 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했던 것이 심사위원 풀을 각각 33명의 전문가 심사위원 풀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심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추천을 해 주셨지만 섭외 순위상 심의에 참여를 못 하였던더라도 이번에 퍼실리테이터 그룹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시면서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나가는데 공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업무 아웃소싱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이 사업의 경우에도, 물론 앞서 의결한 다윈 Reboot나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존재는 했었는데요. 그것은 너무 과거

의 일이라서 이 사업 자체를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만한 수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픽을 동반한 25페이지의 지원심의 결과보고서를 냈고, 25페이지의 지원심의 결과보고서를 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할까 합니다.

논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중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찬성하는 위원님이 여러 분이 계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중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임수연 일자리기획팀장이 이 안건을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연 팀장은 보고해 주십시오.

임수연 일자리기획팀장 : 2021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과거 3개년 이내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을 2021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2억 5,910만 원이고요. 저희는 44명까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액은 고용전환 대상자의 하반기 6개월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1회 연장을 진행해서 30일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33건 39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심의는 7월 19일 영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장르별 심의위원 4인과 노무전문가 2인 등 6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진행했습니다. 심의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상 70%, 항목은 정규직 전환여부, 보수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 그리고 근무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했고요. 예술인력운영현황 30%를 평가했습니다. 심의회의 결과를 보시면 33개 단체의 39명 중에 32개 36명이 선정되었고 지원액은 1억 9,130만 원입니다. 관련 심의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사전에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3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만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심의평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하나씩 평가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 미비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권고하고요. 가령 주휴일 지정이라든지 식비를 포함하지 않아서 최저임금에 위반한 부분들은 정정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1개 단체는 3명 모두 최저임금에 현격하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지급된 내역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 위반 부분까지 지원을 할 것이

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단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행정인력의 경우 나인 투 식스로 주5일을 출근하는데 최저임금 182만 2,480원에서 매달 23만 원 이상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후 시정하고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연수단원의 경우도 월 11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연주 회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주5일 매일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수령하시는 금액이 9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적인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의 3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임수연 일자리기획팀장 : 심의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7월 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월요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내용이나 논의사항 중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도 이 사업에 해당사항이 되나요?

임수연 일자리기획팀장 : 예, 연수단원 지원사업이 국공립 단체와 민간단체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단원 사업에 대해서 국공립 단체의 비율을 줄이라는 국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국공립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현재는 국공립 단체가 10% 미만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국공립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개인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공립도 제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연수단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규직 지원금으로 위원회가 국공립 단체를 또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의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향후 국공립 단체의 정규직 전환을 위원회가 보존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수연 일자리기획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 중에 말씀드립니다. 14시 47분에 전고필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12인 전원이 회의에 임하고 계십니다.

(전고필 위원 회의참여)

박종관 위원장 :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선 위원 : 정동극장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국공립이기는 하지만 실제 연주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연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 단체의 체계가 좋으니까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다소 혼선이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향후 이 사업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개선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2021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없고 찬성하는 위원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 의결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의 건입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안건을 보고해 드리고요. 담당자인 차용진 차장이 함께 회의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사전의견서 중에는 정정숙 위원님께서 이른바 자산배분(안)과 관련해서 안정성 여부에 관해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도중에 사전의견서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안건번호 제900호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지침은 매년 국가재정법 79조에 따라서 당해연도 자산운용 계획을 현행화하여 개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침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표수익률을 현재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1.86%에서 2021년도 1.45%로 조정합니다. 단기자금은 1.42%에서 0.70%로, 중장기자금은 2.01%에서 1.68%로 저금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수익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위험한도는 약 5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7쪽의 제3조를 보시면 1,457억 원에서 1,551억 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8조의

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관련해서는 위원회 내부에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기존 기금운용심의회로 규정이 되었던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현행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라고 현행화하는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의자료 88쪽의 목표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익률에 따라 적용한 것입니다. 제10조 허용위험한도도 마찬가지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허용위험한도 개정 수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6조 자산배분안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자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정숙 위원님께서 16조 자산배분의 3항과 관련해서 안정성, 유동성 비중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기금이 고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동성 자금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많은 전입금이 들어오면서 중장기자금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자금은 25%고 중장기자금은 75%로 기준으로 잡아 운용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을 해서 32%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25% 대 75% 정도로 운용해도 변경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자금이 24%, 중장기자금은 76%로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 차용진 차장이 기관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으니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문예진흥기금이 지난 2017년까지 10여 년간 감소를 해 왔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2018년도부터 기금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작년의 추경으로 인해 증가세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자금 비중을 높일수록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단지자금 25% 대 중장기자금 75% 정도로 중장기 비중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35%, 65% 정도로 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정상화 내지는 안정화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작년처럼 25%대 75% 정도로 중장기 비중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익률은 4.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는 6월 말을 기준으로 3.11%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기준금리를 약 1.5% 내리는 바람에 저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채권투자가 저희의 주요 포지션인데요. 수익률을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름 3%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기금운용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입니다. 예술인들께 자랑을 해도 좋을만한 성과를 낸 것인데요. 오히려 외부에서 이 성과라면 자랑할 만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기금운용을 하는 기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량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용의 중심에는 지금 보고를 한 차용진 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정정숙 위원 :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의견서에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이 되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회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연말쯤 되어서 현재처럼 진행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예상은 어떻습니까?

차용진 기획조정부 차장 : 작년 말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1,551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잔 기준으로는 2,037억 원 그리고 말잔 기준으로는 1,551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평잔은 비슷한 수준이고 말잔은 소폭 상승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행히 올해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충분한 현장예술계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기금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폭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관리는 부장의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전혀 다른 2개의 트랙이 별도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둘 중에 상호 보완하고 상호 감시하면서 보다 건강한 회계를 유지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방어하자고 하는 것이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찬성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반대가 없었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여 준비된 마지막 의결안건까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본관 회의실이 찜통처럼 더워서 회의를 빨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보고사항은 총 10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안건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를 먼저 답변드리고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7월 7일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예술가의 집 위원회 회의실에서 장관 주재의 회의를 하였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현장소통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바가 있고 사전의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10가지 보고사항 중에 가장 앞서서 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보고를 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들으신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개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 현장소통 소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안건은 애초에 의결안건으로 배포가 되었는데요. 보고안건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까지도 현장소통 소위원회 민간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받기까지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장관께서 이 사업에 관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으로 출장 중이십니다. 장관께서는 간담회 이후에 진행되었던 세부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결 공모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문체부의 간곡한 당부가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 경과에서 누락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7월 21일 현장소통 소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의견수렴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진된 내용 중에 본 사업에 대해서 수정·보완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이 당초 보고 드린 내용 대비 달라졌습니다. 당초 최대 지원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고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단체는 제외하고 개인 위주로 하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연하게 모인 팀 단위의 참여는 허용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대 지원규모도 3,000만 원에

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의 기간과 여건을 고려하고 기록사업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점. 더불어 다른 창·제작 지원사업과는 명확한 차별화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증빙자료 제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은 큰 이견이 없으나 임신, 육아 등 경력단절 예술가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바뀐 부분은 심의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보완된 심의기준을 한번 눈여겨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입니다. 주제의 적합성, 예술적 창의성, 계획의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시된 의견들이 “결과물의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혼선이 없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특히 결과물의 분량, 용량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과 사용 허용범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조금 더 반영·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선정이 되면 선정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추가 의견으로 제출 결과물의 편수 등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신 의견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사전의견을 주신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장관께서는 내일 귀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7일에 다시 해외출장을 가신다고 하고요. 문체부 기조실에서 주재하는 본 사업에 대한 회의가 27일 세종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때 어느 정도 후속 일정에 대한 윤곽이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3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폭력방지 서약서가 사용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제시된 양식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NCAS 시스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거기에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위원회 전 사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다원융복합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주신 질문은 “지원대상 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로 나누고 있는데 신청서의 한 부분에는 다원과 융복합이 추가되어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양식에 지원신청분야도 체크하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신청서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큰 틀에서 다원과 융복합을 우리 예술위원회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의 주어진 여건에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는 4개의 의견인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결과물이 없는 사전 기획 중심의 심의와 지원의 문제.” 그래서 “결과물이 없을 경우 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에 맞느냐?” 그래서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 질적 수준을 고려해서 사전 계획 단계의 신청트랙과 결과물을 내는 트랙을 이원화해서 수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술가들이 선택해서 참여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창·제작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최소한의 기록물을 받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하나로 일원화 한다는 것. 저희가 이것을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결과물을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사전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자부담 비용도 있게 될 텐데요. 이 사업의 취지에 과연..... 만약 그렇게 자부담을 발생시켜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실감 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일원화해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품의 규격이나 분량을 제시하자고 하셨는데요. 예컨대 시 또는 산문의 경우 원고매수 분량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예술가들이 사업참여 시 어떤 기준으로 참여해야 할지가 모호한 상태에서 접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문학이나 특정 제출 유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량 제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역의 음원이라든지 영상 등의 유형에 대해 어떻게 분량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가이드효과 “200만 원을 받고 이 정도를 내면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선정 후에 오리엔테이션이나 협약 과정 등이 있고요. 심의기준에 계획의 구체성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서 여기에 “적정 분량의 제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한 후에 근거로 해서 추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기록사업이냐? 창제작이냐? 아니면 창제작도 포함을 할 것이냐? 또는 수준을 따져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예술기록물로 결과를 같음하고 긴급지원의 성격으로 갈 것인가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된 내용을 보자면 이시백 위원님께서서는 1인당 지원규모를 늘리거나 또는 탄력적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정해질 것이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금액 구간의 탄력적 적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액지원이 아닌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도 받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생기는 합니다. 어쨌든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기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18일에 불과한 기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목적인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8월 2일부터 사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통상 현장에 알려지는 기간은 25일 정도 남짓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 도대체 그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많은 예술가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업은 포상금 사업이고 연내에 종료를 해야 하며 더불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 자체가 긴급지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일정을 빨리 소화해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공모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선부르게 의결로 갈 수 없겠다는 판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저희 사무처에서 서면으로 다시 여쭙볼 예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27일 문체부 회의에 참석 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장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7월 7일 장관 주재의 회의 그리고 15일 위원 간담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현장소통 소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27일 문체부 회의 등의 회의일정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문학지원부장이 보고한 내용은 매우 전방위적입니다. 문학, 시각과 공연, 전통, 다원, 영상, 복합장르들의 장르적 차이의 지원사업 설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에 있어서 규격화 문제가 있고 기간의 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록이나 창작작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위원회에 올렸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실무가 해결하고 성안한 상태로 위원회에 의결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까지도 의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오늘 한 번 더 보고를 하고 서면의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논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의견을 많이 내신 홍태림 위원님이나 이시백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시백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이시백 위원 : 시간관계상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문제점과 제안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조금 전에 문학지원부에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조금 더 우려되는 지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맞춰 봤을 때 작품 즉 결과물이 없이 기획서만으로 이것을 선정한다는 것은 자칫 어떤 선심성 사업으로 비판될 것을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자체도..... 제가 만약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심의를 할 경우에, 물론 장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 창작 수준인 문학의 일정 장르들은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 에세이는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무슨 별도의 기획안이 필요할까? 또 그것을 억지추향으로 써낸다고 했을 때 작품이 없이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선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자칫, 또 지원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원규모가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충실한 작품이 응모되고 선정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극단적으로 선정된 작품들의 질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어떤 비판 등의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안을 충분히 고심해서 만들고 현장소통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 안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점들을 의결을 앞두고

본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제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긴급지원이라는 시의성도 필요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담이나 그것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 작가들에게 주는 충격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획서로 우선 심의를 하고 선정되면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장르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 그래서 제 의견은 번거롭더라도 장르의 성격에 따라서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사전에 받아서 심의하는 분야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가 필요한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등의 분야는 르포라든가 이러한 기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선정하는 결과물 중심, 기획서 중심으로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물 중심의 심의위원은 어떤 장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시, 미니픽션, 에세이, 일기, 편지 등을 묶어서 산문. 그래서 이 분야는 즉각적으로 창작이 가능하고 별도의 기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최소한으로 요구해서 심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획서가 필요한 분야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르포, 취재, 인터뷰, 시각예술, 공연예술 그 다음에 복합 장르 등의 분야는 원안대로 기획서를 가지고 선정하는 이원화 체제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의 규격이나 분량에 대해 사전에 어떤 제한된 가이드를 주고 그것이 자유로운 어떤 작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감합니다만, 극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지원의 사업이 자칫, 심지어 문학의 경우에는 1,000명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는 짧은 공모기간에 미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시를 1편만 낸 공모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 결과물의 분량이나 요건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아까 그것이 어떤 제한된 폭을 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대신 꼭대기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3편 이상, 3편에서 5편이 아니라 최소한 밑의 하한선을 두는 것이죠. 시는 3편 이상, 미니픽션은 원고지 20매 이상, 에세이나 산문류 등은 20매 이상, 르포는 50매 이상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하한선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이것의 대안으로 제시한 심의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걸러낼 수 없는 게 기획서만 가지고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결과물을 제시해서 요구하고 받았을 경우라도 총 응모자가 주어질 규모보다 적을 경우에는 할 수없이 시 1편만 낸 분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더라도 외부에..... 제가 알기로 문체부는 장관 간담회 때 의지로 봐서는 미디어 등에 대대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하고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한 예술위원회에서도 선정된 작품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선정작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도 비난을 듣는 선심성이라든가 질적 저하를 비난 받는 여지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최소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수정되어 현장소통 소위 때와 다르게 올라왔지만, 더 촉박해 졌는데요. 저는 지원심의 기간을 최대한, 지원심의위원을 좀 늘려서라도 빠른 기간에 하고 그 대신 접수나 공모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학 분야에서 시나 에세이가 있고 소설이 빠졌는데요. 아마 이것은 분량이 많은 소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미니픽션이라는 짧은 형식의 소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니픽션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학지원부장님, 소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소설을 제외할 때는 문학 장르 양식의 기록적 성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픽션이라는 영역을 제외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설도 최근에 ‘예술원에 대한 보고’ 소설을 보면 그런 것들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태를 반영하는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문제를 전제하면서 사업 간의 안전장치 문제나 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은 제가 볼 때 제안사항을 받아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의나 개선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어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참여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크게 보면 사전지원이 좋냐? 사후지원이 좋냐?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포상금 형식으로 심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주는 것이 좋으냐?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구휼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돈을 받아서 특히 어려운 문학계, 전시 등을 해결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록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상관있는 것이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이나 분량. 특히 분량에 대한 담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분야에서 사진 1장만 내고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이냐? 아니면 구휼이냐고 했을 때 문체부에서는 단순하게 기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기록 플러스 구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지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특히 양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위원회에서 비록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교부했을 때 물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상이 되었다.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플랫폼을 빌려서 올릴 텐데요. 동의를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대훈 부장이 보고를 했는데요. 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예시를 아까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는 3편 이상, 에세이는 어느 정도라는 예를 들면 양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대훈 부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가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협약을 할 때 조건으로, 예를 들면 기획은 좋은데 3편을 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분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것은 결국 이시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아니면 어제 의견으로 나왔던 것들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COVID19에 대한 현상의 기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COVID 일부를 주제로 한

창제작까지 볼 것이냐고 했을 때 기존에 저희들이 창제작사업을,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창제작으로 하기에는..... 특히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 4개월 이상 소비가 되고 창작산실을 통한 교부만 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지는 않지만 주는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현상의 기록이 아니라 코로나 일부를 주제로 한 시를 쓴다거나 르포처럼 다큐멘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둘 다 인정하되 교부금액을 확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모기간인데요. 공모기간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8월과 9월에 공모를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끝내고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과 9월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만 12월 안에 보내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록은 경우에 따라서 1월까지 가서 2월에 결과를 마무리하고 활용하는 시간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1달 정도 당기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나왔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이 정도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기용 감사실장 : 하나만 여쭙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용 감사실장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보면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 및 기존 예술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예술가들을 직접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신청자격을 보면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국가 지원을 받은 지원 단체의 대표들이나 예술가들은 이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의미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질의입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예, 공고가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실장의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구를 구성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재 위원 : 아까 구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긴급지원이라고 쓰고 싶은데요. 성격을 문제부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퀄리티를 평가하겠다고 하면 작가가 문제가 아니라 평가 자체의 시스템이 없어요.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이 긴급추경 45억 원으로 사업을 이것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이 사업보다 복잡한 트랙으로 운영 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심사입니다. 심의에서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았습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 치면 1,500건을 지원 하시겠다는 것이고 2배수, 3배수가 들어오면 거의 5,000건을 심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이 이것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대부분 아이디어성 기획, 아까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훨씬 복잡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기획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확인하는 것도 문제고요. 따라서 생각보다 더 심의 프로세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긴급지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작동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게 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작년에 서울문화재단도 두 번째 2차 심사는 추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중앙일보가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요. 추첨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운영한 것인데요. 그게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술인들이 지원을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인데 안전장치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구홀이라는 용어보다는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심사체계뿐만 아니라 평가체계도 그렇고 저는 시상제도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대안을 내야 할 것 같고요. 27일 문체부와의 논의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KTV국민방송이라든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같은 곳에서 위원회의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의 결과물인 양질의 아카이브 기록물들을 전시하거나 대국민을 위한 통로를 연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될 때 주어진 기본계획 이외에 저작권을 쓰는 것이기에 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제도를 어디까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시다. 그 논의가 끝나면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의결안을 만들까 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받고 재논의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실무적 판단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사체계와 관련한 부분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닙니다. 뭐냐 하면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우수기록물 아카이브냐? 이게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매우 혼란스러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정확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윤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체부의 방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록물, 여기에 모여지는 콘텐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너무 난망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작품 심사의 트랙도 마련해야 하고, 수월성 등 작품 심사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보고 계신 건데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남요원 감사 :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도 이것과 관련한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민되어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포상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체부는, 장관께서 신경을 쓰고 있고 본인께서 귀국한 27일 이후에 프로세스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계된 한국문화예술계의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으로 장관이나 문체부는 생각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45억 원으로..... 지금 우리가 문학만 해서 등록되어진 작가분들만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1만 2,000명을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해 줘도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예술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내몰릴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카이빙도 제대로 된 작품도 못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배제되는 예술가들은 다수일 가능성이 큼니다.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해 맹폭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27일에 문체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아카이빙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4단계까지 올라간 긴급한 현 상황에 의해서 작가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 성격으로, 포상금 보다는 지원금의 성격으로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서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저도 자료를 확인했을 때 몇 백 명, 몇 백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지원이 되었을 때 대한 심의를 아무리 나눈다고 한들 난감합니다. 저도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서울문화재단에서 400~500개를 한 달 넘게 해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상금의 명칭으로 하고 지금 나오는 대관료지원 사업 정도의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결격을 잘라내든지 하고요. 제 생각에 기록을 원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올려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으로 다 나간 다음에 기록을 올리는 것은 비율을 정해서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록으로 올려서 보여주기에는 재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 : 중간에 위원 간담회 때 한번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창작지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예술가들이 지원신청을 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작환경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준비된 사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원재 위원님이 예로 들어주신 작년 서울문화재단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얼마나 단순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술가들이 얼마나 양질의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이시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기준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해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의의 기준도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가이드가 존재해야만 혼선이 없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체부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지는 위원장님이 다음 주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의견대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용어에서 포상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떤 공로가 있을 때 주로 사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예술인들도 포상금이라는 개념으로 받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정유란 위원님과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실무진과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충분히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의 성격을 긴급지원 형식으로 보고 심의방식을 타당성이나 적합성 심의 정도로 단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은 긴급지원의 형식이니까 단순화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량한 성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미리부터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까지의 논의는 이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논의의 기초는 이러하고요. 이 맥락 속에서 지금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큰 열개인 양질의 기록물이 나왔을 경우에 이 기록물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리부터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하고 대응해 나가야하는 숙제거리가 남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은 우리 기금사업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형편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면 되는 이 사업은 독립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이 문학지원부장의 이야기였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그저께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자문회의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취지와 같은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의 퀄리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으니까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이시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트랙을 이원화 한다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했으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시 3편, 에세이 15매만 내면 된다고 가이드를 친절하게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다고 하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시 3편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결정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일단 그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지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반대의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학의 가이드라인이 나갈 경우에 시각예술이나 다른 데 가이드라인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게..... 사진을 몇 장 내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면 제공하고서 욕을 먹겠죠. 저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역풍을 맞을 겁니다. “문학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다른 장르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단 가이드라인 자체를 주는 순간에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산을 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안 준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무정산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가이드라인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보고 뽑을 수밖에 없어요. 계획서를 보고 뽑고 그런 신뢰를 예술가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런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긴급지원의 성격인 것이고요. 다만, 저는 가이드라인을 주면 오히려 큰 논란만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예술가들을 신뢰하고 무정산으로 200만 원을 긴급지원하는데 기록 결과물을 낼 것이다. 그리고 기획서를 가지고 뽑겠죠. 다만, 심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중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다. 다 올린다.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의 태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당신도 긴급지원을 받은 것이니까 알아서 코로나에 관한 것을 내라.” 이것이 저희들이 가질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위원회 차원이나 문체부 차원에서 관료주의적 성과주의가 아니라 이런 긴급지원들이 예술가들의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정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기획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의 평가가 아니고요. 이 45억 원 안에 운영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것들을 언론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하는 건 선별평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술의 가치와 감각과 코로나 시대의 긴급지원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했다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주신 의견에 깊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같은 사업 설계에서도 성과는 견인 될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를 견인했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추후 시스템에 들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추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5억 원 안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제는 크게 흔들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논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상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에 쫓기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시간도 그리 충분하고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세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내용들이 매우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정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요. 정리를 해서 성안을 하고 서면의결로 대응하고 의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하는 형식으로 추후 진행할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공모사업 추진계

획(안) 보고는 이 정도로 받기로 하고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모계획 보고를 연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도 오늘 저희가 의결(안)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23일 오늘이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인데요. 보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국회 내에서 심각하게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 대립 중에 있고요. 오늘 중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이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역시 서면의결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9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 지원 사업 공모 추진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와 존폐위기에 놓인 공연예술제에 대한 긴급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이라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목적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안이 있는데요. 현재 30억 원이 상임위에서 통과했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으로 편성되었을 때는 지난 본예산 때와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최소 단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안으로 혹시 추경이 20억 원이나 그 이하로 편성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업별 최소 단위를 3,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긴급사업인만큼 이미 추진된 사업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들이 9월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난번 내용들과 거의 같아서 그냥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홍태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예산 공모기준이 18% 적용되었던 지역최소보장제를 미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준과 공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업은 사업소재지 그러니까 단체의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개최지를 기준으로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사업들이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최소보장제의 의미가 크게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 자격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난 본예산 때는 민간문화예술단체와 공공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이 모두 포함되어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이 추진방향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었던 기본적인 현장의 의견들과 국회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108쪽부터 110쪽까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 사업이니만큼 민간문화예술단체에게만 지원을 하자는 방향성이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사업은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공연예술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적격 대상 사업 가운데는 본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선정사업들, 본예산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배분원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준에 있었던 위원회 정책방향, 기 추진된 본예산

사업의 심사평, 주요 협·단체 좌담회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미선정 사업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지원규모의 수요를 반영해서 우선 배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넣고요. 신규 사업은 지원신청 접수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후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위원회가 지원정책 방향들을 고려해서 배분할 수 있다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사안이고요. 1안은 2020년 지원 수혜단체 규모로 봤을 때 30억 원의 경우에는 2020년 지원 수혜사업 19억 원 정도, 신규 사업은 11억 원 정도 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억 원일 경우에는 2020년의 지원 수혜사업 16억 원, 신규 사업 14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020년도 지원 수혜사업이라고 함은 2021년도에 본예산 때 미선정된 사업 60건 중에서 2020년도에 지원 수혜를 받았던 단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샘플링 한 결과들이 박스에 있고요. 2안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단체의 건수는 2건 정도가 추가되는데요. 30억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지원 수혜사업의 규모가 약 19억 정도 배정되고 신규 사업이 11억 원 정도고요. 20억 원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중 지원 수혜사업이 17억 원, 신규 사업이 3억 원 정도로 배정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후의 일정은 오늘 만약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면의결 절차를 거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4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본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에 오늘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33조 규모의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 추경의 처리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연예술부장이 길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종 예산이 30억 원일지 20억 원일지 혹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장황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정확하게 결정되면 문자로라도 즉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지금 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서면의결 수순을 통해서 빨리 이 사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의 역사를 1973년부터 얘기할 때 대략 50년 정도가 되는 지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죽은 사업을 살려서 지원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서는 것을 전제로 지원사업을 다시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전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심의 결과보고를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공모 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을 필두로 하여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까지 3년의 텀으로 현재는 시스템화가 되어 협업 약정을 체결해서 이듬해 리서치 사업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본격적인 협업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업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와 관련된 주요 추진경과는

1번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019년도에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운영총괄기획자를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선정된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 사업과 올해 협업에 이르기까지 기획형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연도 협업프로젝트, 작년에 리서치 작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올해 최종 지원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기에 앞서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측과 긴밀한 실무 조율과 심의와 관련된 협업을 통해 사전 코멘트를 받아 심의 때 많이 피드백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6월 초부터 3주간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서 모든 장르를 열어놓고 리서치를 완료한 작업에 대해서 최종 지원을 위해서 공모를 받았고요. Art & Technology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꼭 Art & Technology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리서치 이후의 협업프로젝트도 지원이 가능하게 열어놓았습니다. 총 26건이 지원신청 접수가 되었고 행정 결격 2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최종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A&T라든지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시각이나 다원예술 비중이 신청건수부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퀄리티도 시각이나 다원 쪽 분야의 사업이 비교적 완성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일관성 있게 평가단을 꾸렸고요.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기획자 선정위원으로 같이 결합시켜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단순 초청사업 같은 것을 지양하고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서로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호 호혜적인 국제예술 협업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취지가 강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응책까지 고려해서 엄선을 해 봤습니다. 지원 심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리고 8월 초에 발표하고 최종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교부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결정 내역은 115페이지 이하 총평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심사평에 자세히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첫 번째 사업으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with 에스플라네이드'가 있는데요. 에스플라네이드와는 직접 대면으로 가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청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에스플라네이드와 협력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에스플라네이드가 일단 대관을 해서 아마 그쪽에서 교류조건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일부 항공료나 직접 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분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에스플라네이드 측과 신청단체가 사전에 약속된 어떤 초청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이 더 없으시다면 이 정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장식물과

관련된 유일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였는데요. 그 지위가 법 개정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지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 같이 건축물 장식품과 관련된 돈을 받는 기관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간략한 보고와 대책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자는 지난 7월 9일 김승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1인의 의원들께서 현행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으로 선택적 출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문화진흥법 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가 3가지 사유로 해서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안대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출연기금을 활용해서 아르코공공예술 사업을 약 3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최소보장제를 통해서 지역에 건수로는 40%, 금액대비 30% 정도는 지역으로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법안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출연이 경기도 48%, 서울도 23% 정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간의 출연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저희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더 수입원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법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서류를 보시고 검토를 하셨던 내용으로 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죠.

이원재 위원 : 아주 짧게, 돈이 없다는 논리는 중요한데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느냐 지역이 돈이 없느냐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서 보조 자료로는 좋은 것 같은데 메인은 다른 방향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합운영, 국가 단위에서 건축장식물 재원을 어떻게 통합운영을 하느냐가 우리가 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앞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이것과 상관없이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체부와 계속 이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내부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가 기금모금 폐지 이후에 대체 재원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문화를 부양하기 위한 직접 재원이 지역문화재단에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가지고 이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도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원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큰 문제는 재원 안정화와 관련해서 보다 큰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으로 나눠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저희 기관의 의견 등은 충분히 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예술계도 역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같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여기까지 4개의 보고안건을 보고 받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남아 있는 보고안건들은 소위원회와 TF활동보고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16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 23차, 24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그리고 이 안에는 이미 보고된 것도 있는 것이죠.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대응TF 8차 회의결과도 있고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2차 준비회의 결과보고라든가 아르코예술기록원 활성화 TF 활동 경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장인주 위원님께 보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주 위원님께서 짧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인주 위원 : 제가 화면을 부탁드렸는데요. 짧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PPT 1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리님께서 준비를 하실 텐데요. 회의자료 160쪽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박종관 위원장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인주 위원 : 예, 화면공유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른 팀부터 경과보고를 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시죠.

이원재 위원 : 정책혁신 소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고요.

박종관 위원장 : 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2차 준비회의 결과도 받았으면 하는데요.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죠.

홍태림 위원 : 현장 소위도 간단하게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먼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2차 준비회의 결과보고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당일에 진행을 제가 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괜찮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죠.

이원재 위원 : 위원님들이 참여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정창호 위원, 오영주 위원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날 이행협치추진단과 간담회가 있었고요. 대략 간담회는 이행협치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양구 위원이 저희 아르코와 관련된 유관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유를 받고 포함해서 외부 이행협치단이 보는 저희 위원회에 대한 이행점검이나 과제들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신뢰도 표현해 주셨

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로 지적한 부분은 명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한 부분 중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과 과제까지 포함하여 이번 주에 TF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몇 개의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사건 등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더 깔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것을 리스트업해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책과제나 이행과제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가지를 먼저 파악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내부 회복 등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목요일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인주 위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장인주 위원 : 예. 준비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시작하시죠.

장인주 위원 : 예, 예술기록원 TF 1차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르코예술기록원 TF를 결성한 취지는 모두 기억을 하실 것이고요. 실상 저희가 TF는 6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전회의부터 계산해 보면 두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TF 내부회의를 4회 진행했고, 자문회의 4회, 당인리발전소를 방문했고, 예술기록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일자별 진행순서에 좀 어긋나기는 합니다만, 저희 TF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한 부분은 기록원의 내부 워크숍이었습니다. 이유는 내부에 계신 담당자분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워크숍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6월 28일, 6시간 30분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해서 진지한 토론을 했는데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1988년 예술의 전당을 건축할 때 디자인미술관에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셨던 안호상 교수님과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문체부의 정책분석과의 조한석 서기관님 그리고 아르코 내부에서는 남요원 감사님 등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자문회의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공간 확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기능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주력을 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남은 4개월 동안 어떤 과제들을 성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였는데 굉장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예진흥법 상의 예술자료보존활용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국가예술아카이브로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음 시작이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이전이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기록원의 단독 건물을 갖겠다는 것은 꿈인데 라키비움이라고 하면 도서관과 기록원 그리고 뮤지엄이죠. 요즘은 갤러리까지의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가져보자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의 디자인미술관에 임대료를 내고 입주한 상황이죠. “전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울 지도를 PPT 배경화면으로 깔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록원이 서울을 결국 떠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르코의 본관이 나주로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술기록원의 역할이나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서울에 남아 있어

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전체를 사용하는 안, 그리고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은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10년 전부터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성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진계획에서 예술기록원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라키비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이뤄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경과고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두가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깊게 응원합니다. 보고를 잘 접수했구요. 지금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대기 중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듣고 다음 보고 순서로 이어갈까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안건은 많이 있지만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은 이원재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3차례 회의가 있었습디만, 크게 안건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 마지막 25차 회의를 보시면 과천시의회나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역과의 관계문제가 연계되는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사업, 기타 온라인공론장의 운영상황 그리고 지역간담회에 대한 결과보고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20년 겨울에 진행되었던 아르코현장대토론회를 2021년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아르코현장대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본계획 상 연말에 아르코현장대토론회와 같은 유사한 현장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나 계획에 없었던 다른 토론회가 진행되는 변수 등을 감안해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나왔던 이야기는 한 번에 모여서 하기보다는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박경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가볍게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관련해서 정정숙 위원님께서 지역간담회 결과를 7월 초에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간담회 내용에 대한 공유가 안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지역간담회에 대한 속기록 차원의 로우데이터는 있습니다. 다만,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공개용 회의록 1차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목표는 편집 같은 것을 잘해서 9개 지역 간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8월 2주 내에는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전에 속기록 차원의 현재 진행버전을 위원님들께는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지원 자격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추천제로 가기로 했고요.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면접을 하든지 해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추가로 모시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설명을 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코웹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확보된 상태인데 예산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된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4/4분기에는 적어도 창간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지만 올해는 온라인공론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르코웹진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소위원회가 참여하고 내부 직원도 참여시키고 또는 외부 자문을 넓히는 등 참여의 폭을 넓혀서 준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웹진을 전체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TF 8차 회의 때 나왔던 21일 국회 연계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7월 말에 저희가 예정했던 행사가 4단계 격상 이후에 연기된 상태로 이후 조치상황이 종료된 후에 논의를 하자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만, 현재 버전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 8월 말 개최를 목표로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단계가 연장된 상태라서 해당 의원실로부터 2주 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추진방향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의원실과 저희가 일단 합의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개최를 하자고 하는 공동주최 의원실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고까지 받으셨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흥태림 위원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흥태림 위원 : 예, 정창호 부장님께서 일부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스킵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공유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의견서에는 적었지만 회의 안에서 구두로 언급이 안되어서 다시 공유를 드리면, 저희 지역간담회 성과 확산을 위해서 8월 초에는 저희 홍보팀과 현장소통 위원회 위원 3~4인이 인터뷰 형식의 기사 등의 제작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간략하게 공유해 드리고요. 아까 정창호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신규 사업인 아르코웹진은 어쨌든 현장 소위에서 제안이 되었지만 저희 예술위원회 전체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3~4월에 발족이 된다고 하면 9월 정도에는 창간준비위원회와 담당부서가 정돈이 되어야 해서 4/4분기에 예산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때 창간준비위원회를 준비하게 되면 창간되는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28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청년참여확대방안 논의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 연장선에서 현장 소위에 청년위원으로 계신 저를 포함해서 선아린, 김재훈, 신민준, 이건명 위원님 그리고 최근에는 정책혁

신 소위원회에 계신 성연주, 성지수 위원님이 예술위의 청년예술 의제를 논의하는 모임을 한 달 정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논의 안에서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단초를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아르코 임시 공론장이나 내년도 복간 예정인 아르코웹진 등을 통한 청년예술 의제의 공론화 그리고 전략개발팀에서 지금 대선 정책 제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에 청년예술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내에서 10억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기존 유형들이 있지만 그 유형 외에 추가로 청년예술인 참여예산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의 유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게 좀 들어가게 되면 청년예술가를 수혜자 정체성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국가예술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를 위원회가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요. 청년예술인 참여예산제가 가동되면 작년 아르코대토론회에서 제안되었던 재정 업무를 통한 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의의도 있고 아르코 혁신 의제 차원에서도 11번 의제인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의 의견 반영과 13번 의제인 신진예술인 도전 기회 확대제공을 조금 더 고도화 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아르코 청년예술가 사업의 신규 유형으로 청년예술인 참여예산을 1~2억 원 정도 규모라도 시범적으로 넣어보는 것을 위원회와 사무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말씀하신 청년참여와 관련한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의 각종 논의기구의 참여문제나 혹은 확장을 하려면 심의위원 참여 등 다양한 범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결정하는 차기 간담회에서 연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성평등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셨는데요. 간략하게 보고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3기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3기 성평등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1기와 2기에서 계속 진행했던 데이터프레임을 통한 성평등 지수에 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평등 이슈와 인권침해 이슈가 함께 발생하는 예술현장의 특성 그리고 구조적 차별의 문제 등을 인식하면서 작은 규모라도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규정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조사 등의 활동이 필요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제가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은 제가 섭외할 분들에게 보낼 제안서 파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활동의 내용들과 1기와 2기의 경과들을 정리해서 제안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원 작가님과 이산 작가님에게 3기 성평등 소위의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가 구하였고요. 자문을 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분을 섭외하면 적절할지를 고민해서 무용계, 연극계 그리고 문화예술 비평과 담론을 연구하신 분들까지 폭넓게 섭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서에 대해서 보내드리면 수락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도 서면의결을 통해서 8월에 첫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8월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는 의미신가요?

정정숙 위원 : 서면의결이라도 하시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서면의결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이진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의결(안)을 만들어서 의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위원장님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겠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8월 초에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거든요. 8월 초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희 위원 : 죄송합니다. 8월 중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간담회가 지나고 운영되는 것이라면 간담회 때 논의를 한번 하셔서 결정하고 서면의결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러면 간담회 이후에 서면의결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게 어떨까요? 그 정도 행정적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진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코로나19 대응 TF 쪽에서 정유란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유란 위원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와 TF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개의 보고안을 남기고 있는데요. 2021년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공동주최 추진과 관련해서 극장운영부의 정영순 부장이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부장은 나주가 아니라 동송동 아르코예술극장에 있을 텐데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아르코예술극장 2층 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자료 162쪽이고요. 202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PF) 공동주최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또는 공동주최로 근 10년을 같이 하고 있는 국제공연예술제인데요. 올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통해서 다년간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주요 경과에 이 공연제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주최로 되었던 기관들과 함께 공동주최로서 다년간 지원이 확정된 만큼 극장 공간의 기술적인 지원, 공간의 지원 등이 국가 안에서 가장 큰 정책적인 해외교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유통을 같이 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취지와 함께 같이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공동주최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구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의 공공극장으로서 1~2월에는 창작산실이 주로 공연되고 있고 자체 기획사업이 2021년부터는 '봄 작가, 겨울 무대' 외에는 따로 공연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극장에서 국제공연예술제를 10월쯤 진행하게 된다면 이 극장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경과는 서면으로 같음하고 3년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표 장르로서 공연예술제를 긍정적으로 같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10월의 대관을, 시즌을 정해놓고 해외교류 등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협업을 하면서 두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원활한 협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아침에 홍태림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홍태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관련해서 재원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주최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술감독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2015~2016년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술경영지원센터 사무국을 통해서 예술감독 선임은 되었지만 발표는 아직 안된 상황이고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인데 2015~2016년에 한불 국제교류사업의 예술감독을 하실 때 블랙리스트 백서에 나와 있던 사안으로 이행협치추진단과 1회 미팅을 거쳤고 이행협치추진단에서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걱정한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지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어라.”까지만 1회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조사위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 지금 이행협치단이라든지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부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같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경이 계속 고집을 하겠다. 그분의 의사문제가 아니라 예경이 잘못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공동주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제안하려면 그 감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톱이 되어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 거꾸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으로 공동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원재 위원 : 그렇죠. 공동주최를 다시 논의하고 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공동주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예술감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원재 위원 : 예, 그리고 예술위까지 그 문제가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공동주최를 하게 되면 예술위까지 영향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이원재 위원 : 그렇죠. 알고 있었고 인지를 했는데 공동주최까지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단순히 보고를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원재 위원 : 그래서 위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경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으면요.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 논의로 간담회 때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원재 위원 : 그리고 조금 짧게 보태겠습니다. 그 건과 무관하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SPAF라는 게 되게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르코가 문예진흥기금을 주고 심지어 공공기관인 예경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우리와 공동주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비정상적이네요.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공공기관들끼리 이상하다고 생각할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향후 문체부를 포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을 교부하는데 예경이 신청해서 공모를 받아 우리와 공동주최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이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문제 제기를 8월 정기 간담회에서 연이어 개최하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안건은 코로나19 대응 TF 8차 회의 결과보고입니다. 제가 이미 정유란 위원님께 직접 보고하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유란 위원 : 예, 맞습니다. 별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직전에 말씀하신 국제공연예술제 관련해서 후속조치에 8월 초에 공동주최 승인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8월 간담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를 추가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미뤄지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 드려야죠. 정유란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동일하신지에 대해서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국제공연예술제의 예술감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유란 위원 :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정유란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정정숙 위원 : 저는 예술감독 건이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주최로 들어가는 방식은, 일단 기금을 지원한 다음에 시설을 후원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주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술감독과 관련한 내용과 지원방법 관련된 형식 모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와 관련된 부분을 간담회 때 연속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모든 보고안건을 받았습니다. 10개 안건보고를 일괄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직무 대행은 일정을 위원님들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간담회 및 전체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8월 위원회 때는 제발 방역이 호전되어 여러 위원님들을 직접 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건강과 안부를 묻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8월 간담회 때 뵙고 정기위원회인 8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 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10차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 종료)